

나당군사동맹의 체결 시점 재고*

최희준**

-
- I. 머리말
 - II. 648년 나당동맹의 논의와 그 내용
 - III. 당 태종 사망과 동맹의 추진 중지
 - IV. 무열왕 즉위와 나당동맹 체결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간 간과된 ‘人臣無外交’라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원칙하에 羅唐同盟의 체결 시점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648년에 김춘추가 당 태종과 협상하여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다고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시점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48년 신라 진덕왕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김춘추를 당으로 파견하였고, 김춘추는 당 태종과의 만남을 통해 신라와 당이 군사동맹을 맺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동맹의 주요 목적은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한 후 당과 신라가 영토를 분할하는 것이었으며, 이 계획은 칙서로 작성되어 신라 진덕왕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649년 5월 당 태종이 고구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하며 사망하자 당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강경책을 중단하였고, 이에 나당동맹의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당이 고구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고구려는 당이 장악한 거란족의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당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동몽골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당과 고구려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654년 무열왕 즉위 이후 당에 나당동맹 체결을 다시 요청했고, 이에 당 고종이 긍정적으로 응하면서 마침내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다.

주제어 : 신라, 당, 나당동맹, 김춘추, 무열왕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가천대학교 강사

I. 머리말

軍事同盟(Military Alliance)이란, 국가 안보의 영역에서 국가 간 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자원의 실질적인 기여 제공을 그 특징으로 한다.¹⁾ 한국 고대사의 영역에서도 다수의 군사동맹이 상정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羅唐同盟이다. 나당동맹은 7세기 중엽 신라와 당, 두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맺었던 군사동맹이었다. 특히, 신라는 이 동맹의 성사를 위해서 자국의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였고, 그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수 세기에 걸쳐 상쟁해 왔던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평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동맹을 계기로 촉발된 삼국통일전쟁은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재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나당동맹은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 그 시발점이자 원동력으로써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나당동맹의 체결에 대해서는 연구자 대다수가 648년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김춘추가 入唐 후 당 태종을 만나 추후 함께 고구려·백제 양국을 평정할 계획을 의논했던 상황을 나당동맹이 체결된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

반면, 연구자에 따라서는 나름의 근거를 들어 나당동맹의 체결 시점을 달리 파악하기도 한다. 먼저 이호영은 645년에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신라가 당을 도와 3만의 군사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한 사실을 들어, 이 해가 실질적인 ‘나·당군사동맹’의 성립 시점으로 파악하였다.³⁾ 김덕원은 관련 사서에서 김춘추의 입당 기사가 648년 겨울, 혹은 윤12월조에 기재된 점에 착안하여, 648년은 그가 당에 파견된 시점이고 실제로 나당동맹이 성사된 시점은 당 태종을 만난 이듬해 649년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연민수는 651년 당 고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璽書를 보내 백제가 빼앗은 성을 모두 신라에 돌려주라며 신라 편에서 명령을 내린 점을 들어, 신라와 당의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이 해에 시작되었다고 파악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주보돈은 648년에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한 약속은 문서가 아니라 口頭로만 표명된 것으로, 그 내용이 김춘추를 통해서 신라 조정에 정식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나당동맹 성립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아간 느낌이라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무열왕이 전면전을 결심하고 당에 사신을 보내 원병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659년을 사실상 나당 간 군사동

1) Stefan Bergsmann, 2001.

2) 이기동, 2005 ; 노태돈, 2009 ; 최현화, 2006 ; 이상훈, 2016.

반면, ‘나당동맹’을 대신해 양국의 합동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나당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나당연합’의 체결 시점은 648년으로 동일하게 파악한다(김영하, 2012 ; 김종복, 2019) ; 필자도 선행연구에서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나당군사동맹’이 648년에 체결된 것으로 서술한 바 있다(최희준, 2022, 22쪽).

3) 이호영, 1987.

4) 김덕원, 2022.

5) 연민수, 2004.

맹의 성립 시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⁶⁾

그런데,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나당동맹이라는 신라와 당 양국의 중요한 외교 사안을 검토 하면서 ‘人臣無外交’라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신무외교’란 다른 이의 신하 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외교 원칙이다. 648년에 입당한 김춘추는 신라 진덕왕이 파견한 사신이었다. 따라서 그가 당 태종과 논의했던 나당동맹의 내용이 최종 성사되려면 신라 측 외교권자인 진덕왕의 재가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나당동맹 체결 시점과 관련한 이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급변했던 7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당동맹의 체결 시점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자칫 미시적인 목표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사건의 인과관계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주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7세기 중엽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 흐름 속에서 나당동맹이 체결되는 과정과 시점을 추적하고자 한다.

Ⅱ. 648년 나당동맹의 논의와 그 내용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의 항쟁은 6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백제 義慈王은 즉위 이듬해인 642년 7월에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서쪽 변방 40여 성을 공취하였고,⁷⁾ 같은 해 8월에는 1만의 군사로 신라의 낙동강 서안 군사 요충지인 大耶城을 함락시켰다.⁸⁾ 이에 신라 善德王은 金春秋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할 병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⁹⁾ 신라의 청병 요청을 거절한 고구려는 오히려 643년 백제와 모의하여 신라의 對唐 관문이었던 党項城 공격을 모의하였고, 이를 사전에 파악한 신라는 신속히 당에 사신을 파견해 구원을 요청하였다.¹⁰⁾ 이 과정에서 644년 당 太宗

6) 주보돈, 2017.

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7월,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8월,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滄品釋舍知竹竹龍石等死之.”

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겨울,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滄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642), “新羅謀伐百濟 遣金春秋乞師 不從.”

1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642) 8월, “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년(643) 11월,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책부원귀』 권991, 외신부36, 비어4 당태종 정관 17년(643) 9월 경진, “新羅遣使言 高麗百

은 고구려 정벌을 공식 천명하였고,¹¹⁾ 이에 신라에게도 병사를 내어 참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라는 숙고 끝에 645년 당의 고구려 공격에 조응하여 3만의 군사를 내 고구려 남쪽 변경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¹²⁾ 비록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은 실패로 종결되었으나, 신라의 참전은 당 태종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¹³⁾

647년 1월 신라의 선덕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진덕왕이 즉위하였다.¹⁴⁾ 당시 여왕의 통치에 반대해 왔던 신라의毗曇·廉宗 등 귀족 세력들은 진덕왕이라는 또 다른 여왕의 즉위를 빌미로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¹⁵⁾ 이후 신라 조정은 김춘추로 대표되는 여왕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완전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신라 최고의 실력자였던 김춘추가 648년 사신으로 임명되어 직접 바다를 건너 당으로 들어갔다.¹⁶⁾

A-①. [648년 윤12월 7일] 신라의 재상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이 들어와 알현하였다. 춘추는 진덕의 동생이다. 황상은 김춘추를 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춘추가 章服을 고쳐 중국을 따르게 해달라 청하니, 내전에서 冬服을 꺼내 그에게 하사하였다.¹⁷⁾

濟侵凌臣國 累遭攻襲數十城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 九月大舉 臣社稷必不獲全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編師 以存救援.” ; 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해당 기사는 선덕왕 11년(642년) 조에 기재되어 있어 발생 연도가 다른 사서의 동일 사건 기록과 1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조의 일괄 기사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두찬이므로, 실제로는 이듬해인 선덕왕 12년(643)조에 기입되어야 할 사건이다(권덕영, 1997, 23쪽).

- 11)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8년(644) 2월 을사 초하루, “玄獎還 且言其狀 上曰 蓋蘇文弑其君 賊其大臣 殘虐其民 今又違我詔命 侵暴鄰國 不可以不討.”
- 1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645), “太宗親征高句麗 王發兵三萬以助之.” 『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동이 신라국,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 『구당서』 등의 중국 측 사서에서는 645년 5월에 신라가 파병한 군사의 수를 ‘5만(五萬)’으로 기록한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3만(三萬)’이라고 기록하여 차이를 보인다.
- 13) 최희준, 2022 ; 이 사건을 ‘나·당군사동맹’의 최초 체결로 파악하기도 한다(이호영, 1987). 그러나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과 신라의 참전은 당의 일방적인 참전 요구와 신라의 수락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군사 연합이므로, 사전에 상호 안보를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는 군사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 1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647) 정월 8일, “王薨 諡曰善德 葬于狼山.”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즉위, “眞德王立 名勝曼 眞平王母弟國飯葛文王之女也.”
- 1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6년(647) 정월, “毗曇廉宗等謂 女主不能善理 因謀叛舉兵 不克.”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원년(647) 정월 17일, “誅毗曇 坐死者三十人.”
- 1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진덕왕 3년(649) 1월조에는 ‘始服中朝衣冠’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중국식 의관 제도는 김춘추가 귀국한 이후에 신라에서 시행되었으므로, 648년 겨울에 입당한 김춘추가 이듬해 정월까지 귀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김춘추의 입당을 진덕왕 원년(647)으로 수정해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권덕영, 1997, 26-31쪽). 그러나 진덕왕 3년 1월의 ‘始服中朝衣冠’ 기사는 김춘추가 귀국한 이후 신라에서 시행한 중국식 의관 제도를 그해 처음부터 실시했다고 소급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당서』 본기와 『자치통감』 등에서는 김춘추의 입조 시점을 정관 22년(648) 윤12월 계미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648년과 달리 647년에는 윤달이 없다(平岡武夫, 1954, 38-39쪽). 따라서 김춘추의 입당 연도를 647년으로 수정한 견해는 따르지 않는다(김중복, 2019, 258-259쪽).

A-②. [648년 겨울]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보내 당에 조공하였다. (중략) 하루는 [춘추를] 불러 사사로이 만나[燕見]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며 묻기를, “卿은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라고 하였다.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臣의 본국은 바다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天子의 조정을 엿드려 섬긴 것이 여러 해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방자하게 침범해 오더니, 작년에는 대거 침입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조공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셔서 흉악함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나라의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조회에 참석하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은 깊이 공감하여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춘추가 또한 章服을 고쳐 中華의 제도를 따르게 해달라 청하니, 이에 내전에서 珍服을 꺼내 춘추와 그의 종자에게 하사하였다. 詔로써 배수해 춘추를 特進으로 삼고, 문왕을 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¹⁸⁾

사료 A-①은 신라의 김춘추가 그의 아들 문왕과 함께 사신으로 입당하여 당 태종을 알현한 사실을 기록한 『자치통감』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당 태종은 김춘추에게 特進, 문왕에게 左武衛將軍이라는 당의 관작을 배수하는 한편, 신라도 당의 장복제를 따르게 해달라는 김춘추의 요청에 따라 내전에서 동복을 꺼내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춘추가 당 태종을 알현한 시점을 648년 윤12월 계미(7일)로 특정하였다.

사료 A-②는 사료 A-①과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으로, 사료 A-①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 태종은 공식 사신 접견과는 별도의 자리에서 김춘추를 만나[燕見] 그가 입당한 숙내를 직접 물어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김춘추는 백제의 잦은 침공으로 신라는 현재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만약 당이 군사를 빌려주어 백제를 제거하고 신라를 구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천자의 조정을 섬길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군사를 내어 신라와 함께 백제를 섬멸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사료 A-②는 당 태종이 김춘추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당군의 출정을 허락하였다고 전한다. 즉, 648년 12월 당시 신라사신 김춘추와 당 태종은 백제에 대한 양국 공동의 군사 행동을 논의했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했던 것이다.¹⁹⁾

이때 김춘추와 당 태종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 사료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자치통감』 권199, 당 태종, 정관 22년(648) 윤12월 계미, “新羅相金春秋及其子文王入見 春秋眞德之弟也 上以春秋爲特進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改章服從中國 內出冬服賜之.”

1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遣伊滄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 嘗召燕見 賜以金帛尤厚 問曰 卿有所懷乎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強猾 屢肆侵凌 況往年大舉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敝邑人民 盡爲所虜 則梯航述職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19) 김춘추와 당 태종의 군사동맹 논의가 649년 1월에 개최된 당의 하정식 이후에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덕원, 2022, 29~32쪽). 그러나 사료 『자치통감』에서 김춘추가 당 태종을 별도로 알현한 시점을 648년 윤12월 7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A-①). 따라서 그 시점을 649년 1월 이후로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주장은 취하지 않는다.

B. 선왕(태종무열왕 김춘추)께서는 貞觀 22년(648) (당에) 입조하여 太宗文皇帝를 뵈고 은혜로운 勅을 받았는데, “짐이 지금 고구려를 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여 매번 침략을 당하니 편안한 해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하는 바 아니고, 예물과 백성은 나도 가지고 있는 바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고 平壤 이남의 백제 토지를 모두 너희 신라에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計會과 軍期를 하사해 주셨습니다.²⁰⁾

사료 B는 671년에 작성된 「答薛仁貴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답설인귀서」는 당 高宗의 명을 받아 신라를 공격하러 온 行軍總管 薛仁貴의 서신에 대해 문무왕의 명의로 작성된 답서이다. 서신의 주요 내용은 신라가 648년 당 태종 이세민과 신라사신 김춘추 사이의 군사동맹 논의 이후, 그 합의에 의거해 대백제·고구려 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신의를 지키고 공적을 세웠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함으로써 지금 당의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었다. 그중 648년 당 태종과 신라사신 김춘추 사이의 군사동맹 논의와 그 합의 내용을 언급한 단락이 바로 사료 B 부분이다.

사료 B의 첫머리에 신라사신 김춘추가 648년에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을 만났음은 앞서 A군의 사료에서 살핀 바와 같다. 양자는 별도의 만남을 통해서 군사동맹을 논의하였고, 당 태종은 그 결과를 ‘勅’ 양식의 公文書²¹⁾로 정리하여 신라측에 전달하였다. 이 기사 내용을 두고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文書가 아닌 口頭로만 약속을 전달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²²⁾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勅’은 황제가 사용하는 王命의 한 종류로, ‘칙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하달된다. 따라서 ‘칙을 받았다(奉勅)’는 표현은 칙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칙이 구두로만 전달될 경우, 이를 ‘口勅’이라 특기한다. 따라서 당 태종과 김춘추가 군사동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은 칙서로 작성되어 신라에 전달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칙서의 골자는 당 태종 자신이 지금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는 이유가 고구려와 백제 양국의 침략을 받는 신라가 불쌍해서이고, 자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신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 당시 당 태종은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 김춘추가 입당해 당 태종과 군사동맹을 논의했던 648년 12월의 시점에 당은 이미 고구려에 대한 파상공세를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다.²³⁾ 사료 B의 칙서 내

2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 “先王貞觀二十二年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貪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21) 『大唐六典』에는 당 황제가 사용하는 공문서의 양식으로 ①책서(冊書), ②제서(制書), ③위로제서(慰勞制書), ④발일칙(發日勅), ⑤칙지(勅旨), ⑥논사칙서(論事勅書), ⑦칙첩(勅牒) 등 7종이 정리되어 있다.

22) 후보돈, 2017.

23)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6년(647) 2월,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爲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副之 發兵萬餘人 乘樓舩自萊州泛海而入 又以太子詹事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朗等副之 將兵三千人 因營州都督府兵 自新城道入 兩軍皆選習水

용 중 “짐이 지금 고구려를 벌하는 것은(朕今伐高麗)”이라는 문구는 당 태종과 김춘추가 논의한 군사동맹의 첫 행동 역시도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이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당 황제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 백제가 평정되어야 하는 나라로 처음 지목되었다. 이는 직전의 몇 차례 사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상이었다. 예를 들어, 643년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당항성 공격을 빌미로 당에 병사를 요청했을 때, 당 태종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해 신라를 괴롭히지 말라 타이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²⁴⁾ 당 태종이 645년의 고구려 공격을 준비할 때도 당은 백제에게 대고구려전 참전을 중용하였다.²⁵⁾ 이러한 당의 백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결국 고구려를 제압하고자 하는 당과, 백제를 멸하고자 하는 신라 양측의 염원이 합치되어 고구려·백제 양국을 모두 멸하는 것으로 군사동맹의 기본 목표가 합의 도출된 결과였을 것이다.

셋째, 군사동맹의 결과로 고구려·백제 양국을 모두 평정했을 경우, 평양을 기준으로 그 남쪽의 백제 토지는 신라에게 주겠다고 당 태종이 약속한 점이다. 이는 향후 평정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분할할 때 평양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이, 그리고 그 남쪽은 신라가 나눠 갖는다는 전후처리 원칙을 도출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 태종은 그 내용을 勅書로 문서화하여 신라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이는 추후 신라가 당에 백제 고지의 영유권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648년 당 태종과 김춘추가 논의한 나당동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8년 진덕왕이 김춘추를 당에 파견한 목적은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반면, 당시 당 태종은 고구려의 굴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김춘추와 당 태종은 신라와 당 양국이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하고 그 대가로 평양 이북의 고구려땅은 당이, 그리고 평양 이남의 백제땅은 신라가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군사동맹의 내용은 勅書로 작성되어 김춘추의 편으로 신라 진덕왕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당 태종은 향후 진행될 對고구려전에 앞서 신라군의 역할과 군기를 정하여 함께 신라측에 하달하

善戰者配之.”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6년(647) 7월, “牛進達李海岸入我境 凡百餘戰 攻石城拔之 進至積利城下 我兵萬餘人出戰 李海岸擊克之 我軍死者三千人.”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7년(648) 정월, “帝詔右武衛大將軍薛萬徹爲青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方副之 將兵三萬餘人及樓船戰艦 自萊州泛海來擊.”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7년(648) 9월, “太宗遣將軍薛萬徹等來伐 度海入鴨綠 至泊灼城南四十里 止營 泊灼城主所夫孫 帥步騎萬餘拒之 萬徹遣右衛將軍裴行方 領步卒及諸軍乘之 我兵潰 行方等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綠水以爲固 攻之不拔 我將高文 率烏骨安地諸城兵三萬餘人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我軍敗潰 帝又詔萊州刺史李道裕 轉糧及器械 貯於烏胡壘 將欲大舉.”

2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4년(644) 정월, “遣使入唐朝貢 太宗遣司農丞相里玄奘告諭兩國 王奉表陳謝.”

25) 『문관사림』 권664, 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 “康信又述王意 固請發兵即與官軍同伐凶惡 朕今興動甲兵 本誅弑君之賊 王志存忠正 情切鷹鷂 既稱朕懷 欽歎無已 所發之兵 宜受張亮處分 若討賊之日 能立功勳 王宜錄奏 當加褒獎.”

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나당동맹이 648년에 체결되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기본 개념인 ‘人臣無外交’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의 논의만으로 양국의 동맹이 체결되었다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신무외교’란 『禮記』에 언급된 개념으로,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신의 역할은 군주의 서신, 즉 國書를 전달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고, 현지에서 사신이 벌이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용납되지 않았다. 김춘추라고 하는 당대 최고 실력자가 직접 당에 건너간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상 그는 신라 진덕왕이 당에 파견한 사신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648년 김춘추가 당 태종과 실질적인 차원에서 군사동맹의 내용을 논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합의·도출된 논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군사동맹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은 당 태종의 입장에서 칙서로 정리되어 신라 진덕왕에게 보내졌다. 이에 대해 신라 진덕왕의 동의가 다시 表文으로 정리되어 사신을 통해 당에 전달되어야 했다. 이 같은 국서의 교환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양측 외교권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이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48년에 김춘추가 입당하여 당 태종과 도출한 군사동맹의 논의 결과는 말 그대로 나당군사동맹의 논의 과정으로 이해함이 옳다.

Ⅲ. 당 태종 사망과 동맹의 추진 중지

당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친 김춘추는 입당 이듬해인 649년 2월 30일에 당 태종의 칙서를 지니고 신라로의 귀국을 위해 당 도성을 출발하였다.²⁶⁾ 당의 수도 장안에서 신라 수도 금성까지의 사행길은 육로와 해로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노정이었고, 통상적인 영접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에 편도로만 평균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여정이었다.²⁷⁾ 이를 감안하면,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와 진덕왕에게 사행의 결과를 복명하고 당 태종의 칙서를 전달한 시점은 빨라도 649년 5~6월 즈음으로 판단된다. 당과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하고 그 땅을 나눠 가지자는 나당군사동맹의 구상은 오랜 기간 전쟁으로 지쳐있던 신라인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던 듯하다.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 백성들 모두 은혜로운 칙명을 듣고 저마다 힘을 길러 집집마다 쓰임을 기다렸다”라는 구절²⁸⁾을 통해서 당시 신라인들

26) 『책부원귀』 권974, 외신부, 포리1, 정관 23년 2월 기사, “特進新羅金春秋還國 令三品己上宴餞之 優禮甚備.”

27) 권덕영의 논중에 따르면 신라사신의 대당 사행길은 편도로 唐恩浦路에 15일, 황해를 횡단하는 데 15일, 그리고 登州-長安 간에 60일 가량이 소요되었다(권덕영, 1997, 214~220쪽). 게다가 김춘추 일행은 귀국 중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겨울, “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春秋乘小船至國.”).

의 나당군사동맹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김춘추와 더불어 나당군사동맹을 구상했던 당 태종은 649년 5월 26일에 翠微宮 舍風殿에서 遺詔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²⁹⁾ 같은 달 29일에 太極殿에서 황제의 사망이 발표되었다. 이때 함께 선포된 당 태종의 遺詔에는 遼東, 즉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⁰⁾ 그리고 649년 6월 1일에 황태자 李治가 22살의 나이로 태종의 뒤를 이어 당의 제3대 황제 高宗으로 즉위하였다.³¹⁾

이후 절차에 따라 선험제의 사망과 새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사신이 주변국에 파견되었고, 이에 따라 신라에도 그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당사신이 방문하여 해당 소식을 전달해 왔을 것이다. 당 태종의 사망과 그가 남긴 유조, 그리고 새 황제의 등극이라는 일련의 사건은 모두 신라의 對唐 외교 환경에 있어 일대 변화를 의미했다. 특히 김춘추와 당 태종이 논의했던 신라와 당, 양국의 군사동맹은 신라 진덕왕의 답변을 당에 전달하지도 못한 채 유아무야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동맹 논의의 한 쪽 주체였던 당 태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유조의 내용이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공략하자는 동맹의 내용과 정확하게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진덕왕이 당 태종과의 논의대로 군사동맹을 체결하겠다고 당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즉위한 황제 高宗이 선험제의 유조를 무시하고 신라와 함께 고구려 전쟁을 준비할 리도 만무했다.

당시 나당동맹의 체결과 관련해 신라가 처한 이 같은 상황은 당 高宗 즉위 이후 신라가 당에 파견했던 첫 번째 사신의 행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료는 高宗 즉위 후 처음으로 당에 파견한 신라사신 관련 기사들이다.

C-①. [650년] 신라왕 金眞德이 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사신 金法敏을 보내 내조하였다. 이에 비단을 짜고 五言太平詩를 지어 바쳤다. 황제가 기뻐하며 법민을 太府卿에 배수하였다.³²⁾

C-②. [650년 6월] 신라왕 金眞德이 백제의 무리를 크게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보고하였다.³³⁾

사료 C-①은 『당회요』 신라 영휘 원년(650)조의 기사로 신라 진덕왕이 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김법민을 사신으로 임명해 당에 파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때 진덕왕은 김법민을 통

2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 “新羅百姓具聞恩勅 人人畜力 家家待用.”

29) 『자치통감』 권199, 당기, 태종 정관 23년(649) 5월 기사, “復召無忌及褚遂良入臥內 … 仍令遂良草遺詔 有頃上崩.”

30) 『자치통감』 권199, 당기, 태종 정관 23년(649) 5월 임신, “發喪太極殿 宣遺詔 太子即位 … 罷遼東之役及諸土木之功.”

31) 『구당서』 권4, 본기4, 高宗상 정관 23년(649) 6월 갑술 초하루, “皇太子即皇帝位 時年二十二.”

32) 『당회요』 권95, 신라, 영휘 원년(650), “新羅王金眞德大破百濟 遣使金法敏來朝 仍織錦作五言太平詩以獻 帝嘉之 拜法敏爲太府卿.”

33) 『책부원귀』 권995, 외신부, 교침, 高宗 영휘 원년(650) 6월, “新羅王金眞德大破百濟之衆 遣使以聞.”

해서 친히 짠 비단과 직접 지은 五言太平詩을 당 고종에게 바쳤다고 한다. 사료 C-②는 동일 사건을 기록한 『책부원귀』 외신부 交侵의 기사로, 영희 원년(650) ‘6월’ 조의 편재해 두어 다른 사서들이 언급하지 않은 사신의 활동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책부원귀』는 중국 측 사서이므로 여기서 6월은 신라사신 김법민이 당 고종에게 신라의 승전을 보고한 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금성에서 당 장안성까지 사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장안성 도착 후 체류하며 대기했을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김법민은 대략 650년 초반에 대당 사행길에 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신라는 649년 하반기에 당 태종의 사망과 당 고종의 즉위 소식을 입수하였다. 그리고 신라 진덕왕은 이듬해인 650년 초 김춘추의 아들 김법민을 사신으로 임명하여 당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사신 김법민이 부여받은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당 태종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당 고종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임무였다. 이는 새 황제의 즉위 이후 신라가 파견한 첫 번째 사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여된 임무였을 것이다. 둘째, 새로 즉위한 당 고종의 환심을 사는 임무였다. 이를 위해서 김법민은 신라 진덕왕이 손수 짠 비단과 직접 지은 태평오연시를 지니고 가서 당 고종에게 헌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무는 새 황제가 648년의 나당군사동맹 구상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그 속내를 타진하는 것이었다. 신라는 김인문에게 이례적으로 백제군에 대한 승전 사실을 당 황제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당 고종이 선황의 군사동맹 논의를 계승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떠보기 위한 신라의 외교적 방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법민의 사행에서 세 번째 임무와 관련한 당 고종의 입장은 다음 사료 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D. [651년] 작년(650)에 왕(백제 의자왕)과 고구려·신라 등의 사신들이 나란히 와서 入朝하자, 朕(당 고종)은 오랜 기간동안 얽힌 원수를 풀고 다시 친목과 우호를 돈독히 하라 명하였다. (이에) 신라사신 金法敏이 글로 상주하기를, “고구려와 백제는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앞다투어 군사를 일으켰고 번갈아가며 침입하여 꺾박하였습니다. 큰 城과 중요한 鎭이 모두 백제에 병합되었으니 강역은 나날이 줄어들고 위력도 모두 쇠퇴하였습니다. 백제에 詔를 내려 침략한 성을 되 돌려주게끔 해주시기를 빕니다. 만약(백제가) 조를 받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공격으로 취하되, 옛 땅만 되찾으면 곧바로 서로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짐은 그 말이 이미 도리에 맞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왕은 겸병한 신라의 성을 모두 마땅히 본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라도 역시 사로잡은 백제의 포로를 왕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후에 근심과 다툼을 모두 풀고 병기와 갑옷을 내려놓으면, 백성들은 식견(息肩)의 소원을 이루고 세 나라[三蕃]는 전쟁의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중략) 왕이 만약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반드시 법민이 청한 임무를 허락하여 마땅히 왕과 더불어 전쟁의 승부를 가리게 할 것이다. 또한 고구려가 멀리서 서로 돕는 일을 허락하지 않게끔 약속하게 할 것이다. 만약 고구려가 명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거란의 여러 蕃들로 하여금 요하(遼澤)를 건너 노략질하도록 할 것이다.³⁵⁾

34) 사료 C-①의 내용에서 ‘김법민’이라는 사신의 이름이나 ‘오언태평시’의 헌상 관련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交侵’이라는 표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내용을 가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D는 651년에 당 고종이 당을 방문한 백제사신 편으로 의자왕에게 하달한 외교문서 「與百濟王義慈璽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해인 650년에 백제와 고구려·신라 삼국이 모두 당에 사신을 파견했고, 당 도성에 함께 체류하고 있었다.³⁶⁾ 이때 신라사신 김법민은 당 고종을 알현하고 신라의 대백제 승전보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648년 군사동맹 논의에 대한 황제의 계승 의지를 확인할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제·고구려와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 고종의 명령이었다. 이 같은 당 고종의 입장은 648년 김춘추와 군사동맹을 논의했던 당 태종의 그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당 고종의 입장은 삼국이 모두 당 황제의 藩附이므로 오래된 원한을 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고 힘썼다³⁷⁾ 당 高祖의 입장과 유사했다. 다시 말해, 즉위 초 당 고종의 삼국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당 태종 재위 이전으로 회귀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신라사신 김법민은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하라는 당 고종의 명령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즉, 신라가 백제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당 고종이 직접 백제 의자왕에게 그들이 빼앗은 신라의 성을 반환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백제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라가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빼앗긴 성들은 되찾은 뒤, 곧바로 화해를 청하여 우호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당과 신라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의 분위기에서 김법민은 더 이상 나당 군사동맹과 관련한 언급을 당 고종에게 꺼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당 고종은 김법민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듬해인 651년에 백제 의자왕에게 詔를 내려 의자왕이 신라로부터 공취한 성을 모두 신라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만약 의자왕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더라도 당은 관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고구려 역시도 백제를 돕지 못하도록 자신이 강제하리라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당 고종의 詔는 651년 고종 즉위 초반의 분위기 변화를 잘 대변해 준다. 당시 당은 의자왕에게 보내는 외교문서를 통해서 신라와 백제·고구려 삼국의 갈등을 조정·관리 하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643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앞서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 고구려와 백제 양국에 군사를 거두지 않으면 직접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던 당 태종의 입장과는 뚜렷하게 비교된다.³⁸⁾

35) 『전당문』 권15, 고종황제 與百濟王義慈璽書, “去歲王及高麗新羅等使竝來入朝 朕命釋茲讎怨 更敦款穆 新羅使金法敏奏書 高麗百濟 唇齒相依 競舉兵戈 侵逼交至 大城重鎮 竝爲百濟所併 疆宇日蹙 威力竝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不奉詔 即自興兵打取 但得故地 即請交和 朕以其言既順 不可不許 … 王所兼新羅之城 竝宜還其本國 新羅所獲百濟俘虜 亦遣還王 然後解息釋紛 韜戈偃革 百姓獲息肩之願 三蕃無戰爭之勞 …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麗不許遠相救恤 高麗若不承命 即令契丹諸蕃 度遼澤入抄掠.”

36) 당시 고구려와 백제 양국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대당사신 파견의 표면적인 목적을 당 태종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당 고종의 즉위 축하로 내세웠을 것이다.

37) 『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동이 신라국,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38)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7년(643) 9월 경진, “上命司農丞相里玄奘齎璽書賜高

이처럼 당 고종 즉위 초에는 당 태종의 유조에 따라서 조정 내에 대고구려 강경 노선이 자취를 감췄다. 650년에 사신으로 입당하여 새 황제가 648년의 나당군사동맹 논의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타진했던 김법민은 신라 귀국 후 이 같은 당의 분위기를 진덕왕과 조정에 보고했을 것이다. 결국 648년에 논의되었던 신라와 당 양국의 군사동맹은 649년 당 태종의 사망과 그의 유조, 그리고 당 고종의 즉위로 인하여 동력을 상실한 채 추진이 중지되었다.

IV. 무열왕 즉위와 나당동맹 체결

삼국통일전쟁은 660년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고, 그 군사적 토대는 바로 나당동맹이었다. 그렇다면 649년 당 태종의 사망을 계기로 추진이 중지되었던 나당동맹이 660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다시 추진·성사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①. [655년 1월] 이에 앞서 우리(고구려)가 백제·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고 33성을 취하자, 신라왕 김춘추가 당에 사신을 보내 원조를 구했다.³⁹⁾

E-②. [655년 2월] (당) 고종이 營州都督 程名振과 左衛中郎將 蘇定方を 보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⁴⁰⁾

사료 E-①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로, 655년 1월에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고 33개 성을 빼앗자, 신라 무열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던 사실을 전한다. 이 기사의 전거는 중국측 사서인 『자치통감』이므로,⁴¹⁾ 여기서 655년 1월은 신라사신이 당 고종을 만나 군사 원조를 청했던 시점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 33개 성을 빼앗은 사건은 이보다 앞선 654년 하반기의 어느 시점에 발생했던 일이다. 그리고 사료 E-②는 사료 E-①의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 고종이 655년 2월에 營州都督 程名振과 左衛中郎將 蘇定方を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이다.⁴²⁾

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與百濟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擊爾國矣.”

39)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정월, “先是我與百濟靺鞨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4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2월,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 將兵來擊.”

41)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휘 6년 정월, “高麗與百濟靺鞨連兵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春秋遣使求援.”

42) 사료 E-②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년(655) 3월조에 기재되어 있어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하여 『책부원귀』나 『자치통감』 등의 중국측 사서에서는 동일 내용의 사건을 모두 영휘 6년(655) 2월조에 기입하였다. 따라서 당이 정명진과 소정방을 출격시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한 것은 655년 2월의 일이었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해당 기사는 “2월”의 오기로 판단된다.

두 기사를 종합하면, 654년 하반기에 고구려와 백제·말갈이 연합하여 신라 북쪽 변경을 공격하고 33개 성을 탈취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 사신은 655년 1월 당 조정에서 고종을 만나 상황을 보고하고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당 고종은 신라의 청병에 응하여 곧바로 다음 달인 655년 2월에 장수 정명진과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655년 당 고종의 대응은 앞서 살핀 650~651년의 사례(사료 D)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사료 D에서는 고종이 650년 삼국의 국왕들에게 서로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을 명하였고, 뒤이어 651년 백제 의자왕에게는 신라에게서 빼앗은 성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백제가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도 양국이 싸우게 될 것이며, 고구려 또한 백제를 돕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당 고종은 삼국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하여 신라를 두둔하면서도, 방관하는 조정자 입장을 견지하며 군사 개입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반면, 655년에는 고구려·백제 등의 신라 공격과 이에 따른 신라의 구원 요청에 즉각 군사를 출동시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다시 말해 655년의 당은 당 고종 즉위 초 견지하였던 삼국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벗어나고 신라를 위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사료 E-①과 E-②의 시점에는 이미 신라와 당 사이에 군사동맹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사료 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 [영휘 5년(654) 12월] (왜국에서) 사신을 보내 호박과 마노를 헌상하였는데, 호박의 크기는 한 말[斗]과 같았고 마노의 크기는 다섯 되[升]의 그릇과 같았다. 고종이 책을 내려 왜국왕을 위무하였다. 이에 이르기를, “왕의 나라는 신라와 가깝다. 신라가 평소에 고려와 백제에 침략당하니,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왕이 마땅히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하라” 라고 하였다.⁴³⁾

사료 F는 654년 12월에 倭國사신이 황제에게 방물을 헌상한 사실을 전하는 『당회요』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왜국왕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 고종에게 호박·마노 등의 보석을 방물로 바쳤다. 이에 당 고종은 책을 하달해 왜국왕을 위무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신라와 당이 이미 군사동맹을 체결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인 즉슨, 신라가 평소에 고구려와 백제에 침략당하는데, 왜국이 신라와 가까우니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왜국에서 병사를 내어 신라를 구하라는 당 고종의 명령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고구려와 백제를 한통속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이 같은 자세는 안보의 영역에서 국가 간 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이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자원을 실질적으로 기여·제공한다는 군사동맹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사료 F에 기재된 당 고종의 외교문

43) 『당회요』 권99, 왜국, 영휘 5년(654) 12월, “遣使獻琥珀瑪瑙 琥珀大如斗 瑪瑙大如五升器 高宗降書慰撫之 仍云 王國與新羅接近 新羅素為高麗百濟所侵 若有危急, 王宜遣兵救之.”

서 내용으로 봤을 때, 늦어도 654년 12월에는 나당군사동맹이 체결되어 있었다.

앞서 당 태종은 649년 5월 26일에 사망하면서 長孫無忌와 褚遂良을 궁으로 불러 太子의 보필을 당부하였다.⁴⁴⁾ 이후 황위에 오른 당 고종은 곧바로 장손무기를 太尉 겸 檢校中書令 知尚書門下二省事로 배수하여⁴⁵⁾ 조정 내 최고 기관인 3省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장손무기가 전권을 행사하고 저수량이 보조하는 당 고종 초기의 정국이 조성되었다. 일찍이 장손무기는 643년 당 태종에게 고구려에 대한 정벌보다는 위무를 건의한 바 있었고,⁴⁶⁾ 저수량 역시 644년에 당 태종에게 고구려 원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던 인물이었다.⁴⁷⁾ 이들의 외교적 성향에 당 태종의 유조까지 더해져, 당 고종 즉위 초에는 고구려에 대한 외교정책이 온건 노선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645년 이후 이어졌던 당의 對高구려 과상 공세도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⁴⁸⁾

반면, 고구려는 이와 같은 당의 변화를 틈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나 고구려는 요하 중상류의 동몽골 일대까지 진출하여 당이 장악하고 있던 거란족 사회에 영향력을 뻗침으로써 군사적으로 당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 태종 사후에 서돌궐에서는 阿史那賀魯가 天山山脈 서북방의 伊犁河와 이식쿨호 일대를 거점으로 거대한 反唐 세력을 구축하여 당과 충돌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이와외의 교섭을 통해 연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⁴⁹⁾

G-①. [654년 10월] 고구려가 그 장수 安固를 보내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거란을 침입하였다. 松漠都督 李窟哥가 기병을 내어 그들을 막고 新城에서 싸웠다. 때마침 큰 바람을 만나 고구려가 화살을 쏘면 바람이 불어 모두 되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진영이 어지러워지자 거란이 그것을 틈타 5백 명을 참수하고 말 7백여 필을 획득하였다. 고구려가 패하여 달아났는데, 풀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여 거란이 다시 불을 놓아 그들을 꺾박하였다. 광풍이 날리고 불꽃이 일어나서 사람과 말을 태워 죽임이 매우 많았다. 거란은 그 시체를 모아 京觀을 쌓았고, (당에) 사신을 보내 와 승리를 알렸다. 황제가 조정에서 露布하여 모든 관료에게 알리게 하였다.⁵⁰⁾

44)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태종 정관 23년(649) 5월 기사(26일), “復召無忌及褚遂良入臥內謂之曰 朕今悉以後事付公輩 太子仁孝 公輩所知 善輔導之 謂太子曰 無忌遂良在 汝勿憂天下 又謂遂良曰 無忌盡忠於我 我有天下 多其力也 我死 勿令讒人間之 仍令遂良草遺詔 有頃 上崩.”

45)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태종 정관 23년(649) 6월 계미(10일), “以長孫無忌爲太尉 兼檢校中書令 知尚書 門下二省事.”

46)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司徒長孫無忌曰 高麗無一介告難 宜賜書安尉之 隱其患 撫其存 彼當聽命.”

4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諫議大夫褚遂良曰 陛下之兵度遼而克固善 萬分一不得逞 且再用師 再用師 安危不可億.”

48) 여호규, 2018, 15~16쪽.

49) 권영필, 2008, 57~59쪽 ; 방용철, 2015, 187~188쪽 ; 여호규, 2018, 17~20쪽.

50) 『책부원귀』 권995, 외신부, 교침, 영휘 5년(654) 10월, “高麗遣其將安固 率高麗靺鞨兵侵契丹 松漠都督李窟哥 發騎禦之 戰於新城 適會大風 高麗放箭 風吹竝回 因而陳亂 契丹乘之 斬首五百級 獲馬七百餘匹 高麗敗走 草乾風勁 契丹又縱火迫之 飈焰飛起 燒殺人馬甚衆 契丹聚其屍築爲京觀 遣使來告捷 帝使宣其露布於朝 以示百僚.”

G-②. 永徽 연간(650-655)에 江夏王 道宗이 죄를 얻었는데, 待價가 도종의 사위로서 연좌되어 盧龍府 果毅로 좌천되었다. 이때 장군 辛文陵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招慰하고자 吐護眞水에 이르렀는데, (당군의) 방비가 허술하니 고구려가 엄습하여 패배시켰다. 대가는 中郎將 薛仁貴와 더불어 詔를 받들어 東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인하여 자신의 部를 이끌고 그를 구원하였다.⁵¹⁾

사료 G-①은 고구려의 군사가 654년에 거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가 충돌이 발생한 사건을 기술한 『책부원귀』 외신부 교침 영휘 5년(654) 10월조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장수 安固가 고구려와 말갈 군사를 이끌고 거란의 영역을 침범하자 松漠都督 李窟哥가 이끄는 거란군이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굴가는 거란인으로 648년 자신의 부락을 모두 이끌고 당에 복속한 인물이었다. 복속 당시 당 태종은 오늘날 중국 內蒙古自治區 赤峰市와 通遼市 일대에 해당하는 그의 영지에 松漠都督府를 설치하고 그에게 李氏 성을 하사하였다. 즉, 사료 G-①은 654년 당시 고구려가 동몽골의 거란 영역으로 진출을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에 부응했던 거란 세력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음을 전하는 기사이다.

사료 G-②는 永徽 연간(650-655)에 당과 고구려의 군사가 동몽골 지역에서 직접 교전한 사실을 전하는 『구당서』 韋待價전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당의 장군 辛文陵의 부대가 吐護眞水에서 고구려군에게 공격을 받자, 盧龍府 果毅 위대가가 中郎將 薛仁貴와 함께 그를 구원해 주었다고 한다. 신문룡의 부대와 고구려군의 교전이 이루어진 토호진수는 시라무렌하 남쪽 지류인 老哈河에 비정된다.⁵²⁾ 따라서 사료 G-② 역시 동몽골 일대에서의 고구려군 활동을 확인시켜주는 기사인 것이다. 위대가는 江夏王 李道宗의 사위로, 그가 653년 2월에 죄를 얻어 유배되자⁵³⁾ 함께 연좌되어 노룡부로 좌천되었다. 따라서 사료 G-②의 전투는 653년 2월 이후부터 65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기의 한정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654년을 전후한 시점에 고구려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요하 중상류의 동몽골 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공세적 군사전략을 펼쳤다.⁵⁴⁾ 이로 말미암아 당과 고구려 양국의 군사적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다. 사료 G-①에서 송막도독 이굴가의 승전 보고를 받은 당 고종은 이 사실을 露布하여 조정의 모든 관료에게 알렸다. 이는 654년 10월 당시 고구려가 요하 중상류의 거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 고종의 강한 의지를 방증한다. 당 고종이 즉위한 649년 6월부터 654년 10월까지 약 5년간 사료 상에서 당의 고구려 공격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654년 10월 이후부터는 655년⁵⁵⁾, 658년⁵⁶⁾,

51) 『구당서』 권77, 열전27, 韋待價, “永徽中 江夏王道宗得罪 待價即道宗之壻也 緣坐左遷盧龍府果毅 時將軍辛文陵率兵招慰高麗 行至吐護眞水 高麗掩其不備 襲擊敗之 待價與中郎將薛仁貴受詔經略東蕃 因率所部救之.”

52)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 岩波書店, 236-237쪽.

53)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휘 4년(653) 2월 을유, “侍中兼太子詹事宇文節 特進太常卿江夏王道宗 左驍衛大將軍駙馬都尉執失思力 並坐與房遺愛交通 流嶺表.”

54) 고구려의 동몽골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노태돈, 2009 ; 羅棟煜, 2009 ; 윤병모, 2009 ; 이재성, 2011 ; 김지영, 2014 ; 방용철, 2015 ; 여호규, 2018 ; 서영교, 2018.

659년⁵⁷⁾ 등 당의 대고구려 공세가 다시 사료에서 등장한다. 즉, 654년 10월을 기점으로 당 고종의 대고구려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이다.

한편, 신라는 당 태종의 사망과 고종의 즉위로 나당동맹 논의가 중지된 후에도 당의 대고구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김춘추는 648년 당 태종과 동맹을 논의하고 귀국하던 때(649년)에 이미 자신의 제3자인 金文王을 당에 남겨 당 태종 곁에서 宿衛하게 하였고,⁵⁸⁾ 당 고종이 즉위 후인 651년에는 제2자 金仁問을 입당시켜 숙위를 교체하였다.⁵⁹⁾ 이들 신라 숙위는 당 황제 곁에서 시위하면서 제국의 수도로 유입되는 각종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당과 그 주변국들의 국제정세를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 중에서 신라에 유익한 것들은 매년 신라가 당에 파견했던 대당사신을 통해서 본국에 보고되었으리라 본다. 650년대 전반 신라는 당과 그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십분 경주하였다.

[표 1] 650년대 전반 신라의 대당사신 파견

연번	파견 연월	사신명	사행 목적	전거
1	650년 6월	김법민	백제 격파 사실 보고, 대당태평시 헌상	史記, 舊, 新, 冊
2	651년 2월	김인문	김인문을 숙위로 교체	史記
3	652년		조공	史記, 冊, 貢
4	653년 11월		금총포 헌상	史記, 冊
5	(654년 3월)		진덕왕 사망 및 무열왕 즉위 통지	
6	654년 (9월)		무열왕 책봉에 대한 감사	史記
7	(654년 10월)		고구려 백제-말갈의 침입에 따른 구원 요청	史記, 舊, 新, 冊, 貢

※史記 : 『삼국사기』, 舊 : 『구당서』, 新 : 『신당서』, 冊 : 『책부원귀』, 貢 : 『자치통감』, () : 수정된 연월.

그러던 중 653년 당에서 숙위하던 김인문이 부모를 뵙기 위해 신라로 귀국할 것을 요청하자 당 고종이 조를 내려 허락한 사실⁶⁰⁾이 주목된다. 시기상 그의 귀국 요청은 653년 11월에 입당하여 金總布를 헌상했던 신라사신단의 방문⁶¹⁾ 즈음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귀국을

5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년(655) 5월, “名振等渡遼水 吾人見其兵少 開門度貴湍水逆戰 名振等奮擊大克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歸.”

5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7년(658) 6월, “唐營州都督兼東夷都護程名振右領軍中郎將薛仁貴 將兵來攻 不能克.”

57)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8년(659) 11월, “唐右領軍中郎將薛仁貴等 與我將溫沙門戰於橫山 破之.”

5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648), “春秋奏曰 臣有七子 願使不離 聖明宿衛 乃命其子文王與大監□□.”

5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5년(651), “遣波珍滄金仁問入唐朝貢 仍留宿衛.”

60)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인문, “永徽二年 仁問年二十三歲 受王命入大唐宿衛 高宗謂涉海來朝 忠誠可尚 特授左領軍衛將軍 四年 詔許歸國觀省.”

6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7년(653) 11월, “遣使大唐 獻金總布.”

요청했던 653년 하반기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이 장악하고 있던 거란 지역으로 고구려가 점차 영향력을 뺏쳐 옴으로써 당과 고구려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어 갔던 시기였다. 숙위 김인문은 당시 고구려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당 조정 내의 반감 등을 고려했을 때, 군사동맹의 재추진 가능성을 확신하고 이를 직접 신라 조정에 보고할 목적에서 귀국을 결심한 듯하다. 이에 당 고종의 허락을 득한 뒤 653년 11월에 입조했던 신라사신의 귀국편에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김인문의 귀국과 신라 조정에서의 복명 시점은 이듬해인 654년 2-3월경으로 비정 가능하다.

그런데, 김인문이 귀국한 654년 상반기에 신라에서는 진덕왕이 사망하고,⁶²⁾ 그 뒤를 이어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즉위하였다.⁶³⁾ 새롭게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상례에 따라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전왕의 사망과 자신의 즉위 사실을 통지하였을 것이다. 이에 소식을 접한 당 고종은 永光門에서 애도를 표하고 太常丞 張文收를 신라에 파견해 節을 지니고 가서 조문하도록 명하였다.⁶⁴⁾ 이때 무열왕에 대한 책봉의 임무도 함께 부여했는데, 그 시점은 654년 윤5월 18일로 파악된다.⁶⁵⁾ 이렇게 임명된 당의 조문 및 책봉사는 편도 약 3개월의 여정을 거쳐 654년 8월 즈음 신라 도성에 도착하였고, 진덕왕의 사망에 따른 조문과 무열왕의 즉위에 대한 책봉의 임무를 수행했다.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원년(654)조에는 당사신이 무열왕을 책봉하자, 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감사의 表를 올렸던 사실을 전한다.⁶⁶⁾ 이 해 초 당에서 숙위했던 김인문이 귀국하여 당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동맹 재추진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진덕왕의 사망과 무열왕 즉위라는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관련 논의가 잠시 중지되었다. 그러다가 당 황제의 책봉으로 무열왕의 왕위 계승이 일단락되자, 나당동맹의 재추진 건이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무열왕은 당 태종과 나당동맹의 기본틀을 함께 구상했던 인물로, 나당동맹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무열왕은 654년에 파견한 謝恩使 편으로 당 고종에게 나당동맹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동맹의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표문을 작성하여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이 해의 사은사는 앞서 신라를 방문한 당의 조문 및 책봉사에 대한 答使이므로, 이들이 신

6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654) 3월, “王薨 諡曰眞德 葬沙梁部.”

6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654), “太宗武烈王立 諱春秋.”

6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654) 3월, “唐高宗聞之 爲舉哀於永光門 使太常丞張文收 持節吊祭之 贈開府儀同三司 賜綵段三百.”

65) 『자치통감』 권199, 당기15, 고종 영휘 5년(654) 윤5월 임진, “新羅女王金眞德卒 詔立其弟春秋爲新羅王.”

『책부원귀』 권964, 외신, 봉책2, 영휘 5년(654) 윤5월, “新羅女王金眞德卒 以其弟國相金春秋爲新羅王 繼眞德之位 仍拜開府儀同三司 封樂浪郡王 遣使持節備禮冊命.”

6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654), “唐遣使持節備禮 冊命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王遣使入唐表謝.”

67) 『삼국사기』 강수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라의 사은사가 전달한 무열왕의 표문은 신라 강수(強首)가 작성하였다(『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 傳詔書 … 使製迴謝唐皇帝詔書表 文工而意盡.”).

라를 출발한 시점은 당사신이 신라 도성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한 8~9월 이후였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의 이동 기간을 감안한다면, 신라 무열왕의 표문은 사신을 통해 654년 11~12월 즈음 당 고종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당 고종이 송막도독 이골 가로부터 고구려에 대한 승전을 보고받고 이를 조정에 널리 포고한 직후였다.(사료 G-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종 즉위 후 당이 고구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견지하자 고구려가 그 틈을 노려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의 축적한 갈등은 654년 露布를 통해 공문화되었다. 이제 당은 고구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 신라사신이 나당동맹 재추진을 요청하는 무열왕의 표문을 지니고 당으로 건너와 당 고종에게 전달하였다. 동맹의 기본 틀은 기존의 논의에서 합의된 바대로 당과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제압하고 평양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눠 갖는 것이었다. 이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합치됨으로써 당 고종은 신라 무열왕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였다.

그 결과 당은 동맹으로서 신라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654년 12월 왜국의 사신에게 書를 내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침략할 때 가까운 왜국이 군사를 내어 신라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거나(사료 F), 655년 1월 신라가 고구려·백제·말갈의 군사가 신라의 북변을 침탈했다며 구원을 요청하자(사료 E-①) 같은 해 2월 곧바로 군사를 출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였다.(사료 E-②) 이후 신라와 당 양국은 점차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였고, 마침내 나당연합군의 660년 백제 공략을 시작으로 삼국통일 전쟁이 개시되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그간 간과된 ‘인신무외교’ 라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원칙하에 羅唐同盟의 체결 시점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648년에 김춘추가 당 태종과 협상하여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다고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시점의 재고가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맺음말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진덕왕대 신라의 최고 실력자였던 김춘추는 648년 사신의 지위로 당에 건너가 당 태종을 만났다. 당시 신라 진덕왕이 김춘추를 당에 사신으로 파견한 목적은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반면, 당 태종은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김춘추와 당 태종은 신라와 당 양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평정한 뒤, 그 대가로 평양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이, 그 이남의 백제 땅은 신라가 나눠 가질 것을 논의하였다. 이 내용은 칙서로 작성되어 김춘추 편으로 신라 진덕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나당동맹이 공식 체결되기 전인 649년 5월에 당 태종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중

지하라는 遺詔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당 태종의 사망과 당 고종의 즉위, 그리고 당 태종이 남긴 유조 등으로 인하여 고종 즉위 초의 당 조정에서는 고구려 강경 노선이 자취를 감췄고, 나당동맹은 동력을 상실한 채 한동안 추진이 중지되었다.

한편, 650년대 전반 당의 고구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틈타, 고구려는 당이 장악하고 있던 요하 중상류의 거란족 사회에 영향력을 뻗치는 등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며 당을 견제해 나갔다. 그 결과 654년을 전후한 시점에 동몽골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당과 고구려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었다. 나당동맹 논의 중지 후에도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당과 그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해 왔던 신라는 당과 고구려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654년 김춘추의 태종무열왕 즉위를 계기로 당에 나당동맹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 시기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합치됨으로써 당 고종은 신라 무열왕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여 나당동맹이 성사되었다.

투고일: 2024.10.31,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중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 김덕원, 2022,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95.
- 김영하, 2012,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 김종복, 2019,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127.
- 김지영, 2014,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羅棟煜, 2009,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韓國史研究』144.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80.
- 서영교, 2018,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令出兵授新羅 璽書의 背景」, 『역사학보』 237.
- 여호규,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邱史學』133.
- 연민수, 2004,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24.
- 윤병모, 2009,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요서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27.
- 이기동, 2005, 「신라의 대당(對唐) 군사동맹과 삼국통일」, 『한국사 시민강좌』36.
- 이상훈, 2016,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거란·해」, 『중국고중세사연구』26.
- 이호영, 1987,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論文集：檀國大學校(人文·社會科學篇)』 21.
- 주보돈, 2017, 「羅唐同盟의 始末」, 『大邱史學』126.
- 최현화, 2006, 「7세기 중엽 당(唐)의 한반도(韓半島) 지배전략(支配戰略)」, 『역사와 현실』61.
- 최희준, 2022,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54.
- Stefan Bergsmann, 2001, 『The Concept of Military Alliance, Small States and Alliances, ed. Erich Reiter and Heinz Gartner』, Physica.
-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 岩波書店.
- 平岡武夫, 1954, 『唐代の曆』,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Abstract】

Reconsidering the Timing of the Conclusion of the Silla-Tang Military Alliance

Choi, Hee-joon
(Gachon University)

In 648, Kim Chunchu of Silla visited Emperor Taizong of the Tang to seek an alliance aimed at countering Baekje. During their meeting, they discussed concluding a military alliance between Silla and Tang, intending to subdue both Goguryeo and Baekje and then divide the territories. This plan was formalized in an imperial edict, which was sent to Silla. However, in 649, Emperor Taizong passed away, leaving a command to halt the assault on Goguryeo, causing the Tang court to pause its aggressive policy toward Goguryeo, and the Silla-Tang alliance was temporarily suspended. While Tang was responding passively to Goguryeo, the latter expanded its influence over the Khitan territory controlled by Tang, intensifying pressure on Tang. As a result, around 654, military clashes erupted in the eastern Mongolian region, reigniting tensions between Tang and Goguryeo. Seizing this opportunity, Silla, under King Muyeol, renewed its request to Tang for an alliance, which Emperor Gaozong approved, finally concluding the Silla-Tang military alliance as both kingdoms' interests aligned.

Keywords : Silla, Tang, Silla-Tang military alliance, Kim Chunchu, King Muyeol